

축산업계 소식

계우회 연합회 월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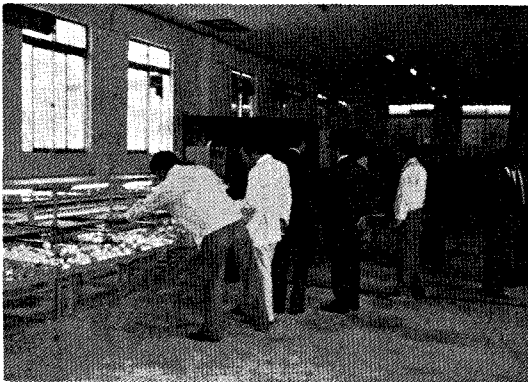
- 총무에 박동원씨 선임 -

계우회 연합회는(회장 임용택) 10월 8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월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 광주 계우회의 박동원씨를 계우회연합회 총무로 선출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그외에 무리한 규모확장 자체에 대한 결의문 채택과 계란군납의 개선방안 및 축산진흥기금의 통합반대에 대한 회원들의 의사를 관계요로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자동세란선별기

DHG-2000제품설명회 개최



대한특수기계(대표 고증현)는 지난 9월 25일 대전 본사 공장에서 일본의 <주>에그날정기제작소와 기술 제휴 및 주요 부품 공급 계약에 의해 첫

생산된 전자평량장치 컴퓨터 제어 방식의 자동 세란선별기 DHG-2000의 시운전 및 제품 설명회를 개최하고, 계란 처리와 양계 산업 기계화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시간당 2만개를 처리할 수 있는 자동 세란선별기 DHG-2000은 전자평량장치에 의한 2열 선별 방식의 선별기로서 진공펌프 에그리프터로 계란을 투입하여 제1검란부, 세란부, 건조부, 제2검란부를 통하여 계란의 품질을 고도화하고 로드셀에서 감지된 중량을 전자평량장치인 EGG SELECTOR MKII에서 선별하여 퍼스널 컴퓨터에 입력한 후 중량별로 각 부분에서 선별되는 고도의 첨단기종이다.

동사는 축산물 위생처리법 등 강화되고 있는 규제조치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며 신선란 공급과 계란의 체화 현상을 방지하고 계란의 상품성을 제고시켜 계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판매촉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첫 생산된 자동세란선별기 DHG-2000은 양산의 오경농장(대표 김중경)에 납품되어 가동하게 된다.

라이소 소독위생 세미나 개최

- 이화약품 주최, 9월 26일

엠배서더호텔서 -

「라이소 소독위생 기술세미나」가 이화약품(대표 이정협) 주최로 9월 26일 엠배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었다.



(이정협 사장)



(Brill 박사)



(김기석 박사)

양계 생산자, 농수산부관계관, 단체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는 이정협 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독일 설케 마이어사 Schmukalla 씨(마케팅 담당)의 자사소개, 박수경 상무의 강사소개가 있었다.

「소독제의 효능측정」에 관하여 주제 발표한 S & M사의 Brill 박사(미생물연구부장)는 소독제의 개념, 소독제의 효능평가시험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축사위생관리의 요체는 청결, 소독, 오염원의 제거라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라이소벨PA, 올비벨, 라이소록, 라이소탄, 라이소 에스크 등 S&M사 제품의 효능, 특성, 사용방법을 소개했다. 통역은 김봉환박사(경북대수의대)가 맡았다.



△ 앰배서더호텔서 열린 라이소 소독세미나

「국내 닭 콕시들행의 발생현황과 발생대책」에 대해 발표한 김기석박사(가축위생연구소 계역과)는 닭 콕시들행은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으며 양계선진국에서도 골치거리로 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슬라이드를 통해 육계의 콕시들행충

감염상황, 농가의 콕시들행원충 오염도 등을 설명했다. 그는 또 콕시들행은 닭체내에서 7일간 생활하게 되는데 개체별로 감염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한 계군에서 발병되면 1달 정도 간다고 덧붙였다.

김기석박사는 계속해서 이화약품에서 연구의뢰한 바 있는 라이소록의 포자형성능 및 억제효과, 살충효과를 소개하면서 라이소록 5% 소독제를 사용할 경우 10분경과후에는 전혀 포자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콕시들행원충 살충효과에 있어서도 무처리시의 폐사율이 80%인데 반하여 2분경과후부터는 폐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박사는 끝으로 콕시들행원충의 증식조건은 습기, 산소, 온도인데 특히 습기가 많을수록 오래 생존하므로 계사관리에 있어서 습도조절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가 끝난후 소독방법, 소독제의 효능 등에 관해 질의응답을 교환했으며, 6시반부터는 주최측에서 준비한 석식을 즐기며 참석자들간에 서로의 근황을 물었다.

'85추계 하바드세미나 개최

- 10월 15일부터 전국순회 예정 -

신기농장(대표 이상윤)은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면서 '85추계 하바드세미나를 개최한다.

15일 대전, 16일 대구, 17일 광주, 18일 서울에서 각각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동사에서 금년부터 분양하고 있는 초대형육용계 하바드F·F의 육종개량에 관한 자료와 질병 및 사양관리개선책에 대해 해당전문가들의 강의가 있을 예정이다.

15일(화) 오전 11시부터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의 강사 및 연제는 다음과 같다.

• 장소 : 유성관광호텔 3층

• 강사 및 연제 :

하바드육종방향 및 성적.....페브르너 박사(미국 하바드농장)

최근 양계질병 동향과 대책.....최정옥박사(전 남대)

양계인이 알아야 할 사료지식...성이제실장(사

료협회)

우리나라 육계산업의 개선방향...조성남실장
(신기농장)

세미나 결정

일 자	장 소
10월 15일	대전 유성관광호텔
16일	대구 동인관광호텔
17일	광주 카톨릭센터
18일	서울 팔레스호텔

콜레스테롤 걱정 안해도

오스트레일리아의 애들라이드시에 있는 플린더스대학의 연구팀은 고밀도지방단백질의 소분자인 HDL 3 (high-density lipoproteins) 을 대분자인 HDL 2 로 변화시키는 인간의 새 단백질을 분리시키는데 성공했다. 보다 큰 지방단백질인 HDL 2는 보다 작은 HDL 3 보다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작용이 더 강하여 동맥경화증과 심장마비를 예방하는데 보다 효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플린더스대학의 연구팀장인 필립버터교수는 이번에 HDL 2 를 증식시키는 새로운 단백질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심장병의 주요 원인의 하나인 동맥경화의 예방 방법을 연구하는데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보건신문 LA 헬스타임스).

닭고기 소비량 계속 증가 예상

- 인스턴스용, 발골육 인기 -

최근에 발표된 美國 브로일러협회(NBC)의 年例 조사결과에 의하면 닭고기는 유리한 가격, 건강 및 영양적인 우수성으로 인해서 그 소비가 계속 증가할 전망이며 업계의 일부에서는 10년후인 1995년에는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소비량을 능가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이미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소비량에 있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단계에 와 있고 USDA는 금년도에 닭고기 소비량이 돼지고기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는데 NBC 조사응답자중 67%가 이에

동의하였다.

NBC의 Black Lovette 회장은 닭고기를 선호하는 이유중에서 소비자들은 가격보다는 건강과 영양상의 측면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이 조사결과 밝혀졌다고 말한다.

닭고기의 판매선을 보면 즉석식품업체, 회사 및 공공기관, 레스토랑등을 포함하는 대량소비처의 비중이 점차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금년도에는 닭고기 전체 판매량의 35% 이상이 대량소비처를 통해서 소비되고 약 60%는 소매점으로 가며 나머지 5%미만이 해외로 수출되거나 해외주재 미국인들이 소비할 것으로 추정된다. NBC는 이번 조사보고서에서 이들 대량소비처의 소비량은 1990년에 전체의 40.6%, 1995년에는 45.9%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닭고기의 대량소비처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은 즉석식품업체이고 그다음은 공공기관 그리고 레스토랑 및 구내식당으로 나타났다.

한편 닭고기의 판매형태는 마리단위의 판매가 금년도 시장점유 30%에서 1990년 23.4%, 1995년 18.0%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위별 판매도 금년도의 80%에서 1990년 45.9%, 1995년 42.9%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즉석요리의 가공된 닭고기는 금년도 시장점유 20%에서 1990년 30.7%, 1995년 39.1%로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같은 즉석요리용 닭고기의 소비증가 예상은 취업주부의 수가 늘고 있고 소비자들이 더 많은 자유시간을 갖기 위해 생활의 편이를 추구하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이외에도 기업들이 부가가치를 높인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노력과 소득의 증가, 자래인지 사용증대, 건강에 대한 관심도, 가공기술의 향상 등이 즉석요리용 닭고기 소비를 촉진시키는 요인들로 NBC는 분석하였다.

즉석요리용 닭고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발골육제품의 시장점유 예상을 보면 금년도 닭고기 전체의 14%에서 1990년에 21%, 1995년에는 29%에 달할 것이라 한다.

아르헨티나, 곡물수출에 신기록

아르헨티나의 곡물청은 금년 1~5월까지의 곡물 수출실적이 작년동기 대비 150만톤이 증가된 1,467만톤에 달하여 지금까지의 최고기록을 갱신하였다고 밝혔다.

연말까지의 곡물수출량도 2,500~2,700만톤에 달하여 역시 신기록을 수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84/85년도 주요곡물생산량은 소맥이 전년보다 30만톤 증가된 1,300만톤, 옥수수는 전년보다 250만톤이나 증가된 1,200만톤, 수수는 전년보다 20만톤 감소된 600만톤, 대두가 전년보다 70만톤이 감소된 620만톤이었다. 대두와 수수의 생산량이 감소되었으나 옥수수의 대폭적인 증산에 힘입어 4품목의 생산량합계는 190만톤이나 되었다. 생산량증가와 함께 수출도 순조롭게 증가되던중 지난 3월 주요 곡물수출항구인 바이아 블랑카의 수출용 엘리베이터가 폭발하였다.

따라서 선적능력이 대폭 저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5월의 선적량은 지금까지의 월간기록을 연속적으로 갱신하였다. 주요곡물의 수출예상량은 소맥이 880만톤으로 전년 대비 50만톤의 증가가 예상되며 옥수수는 전년보다 250만톤이나 증가된 880만톤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대두는 2월의 강우량 부족으로 생산량이 예상보다 감소되어 수출량은 작년보다 50만톤이 적은 270만톤으로 예상된다.

가축번식장애 예방치료제 세미나개최 -대한생명빌딩 2층 국제회의실에서-

삼성신약(대표 이용직)은 지난 9월 3일 여의도63층 대한생명 2층 국제 회의실에서 가축번식장애 예방치료제 아도헬스세미나를 양축가, 업계, 학계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용직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랫동안 임상에 종사한바 닭, 돼지, 소분야에서 홀몬제로 치료 못하는 것을 아도헬스제로 치유 가능함을 보았다고 말하고 뇌하수체기능 증진과 난소, 정소에 왕성한 효능이 있다고 밝혔다.



(이용직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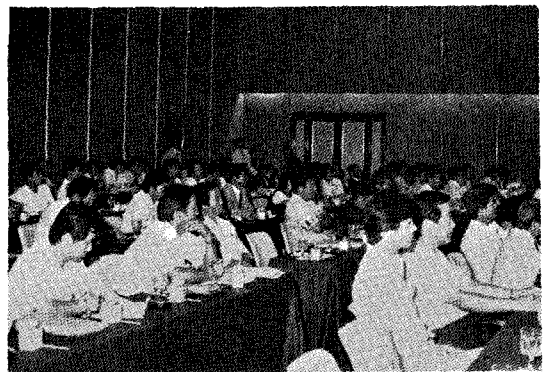
(이남신 회장)



(牛越設男)

이어 이남신회장(한국수의사회)은 유축농업은 현재 우리나라 농업분야에서 일등국민으로 성장했다고 밝히고 번식장애는 여러 형태로 일어나며, 원인 모를 번식장애는 홀몬의 남용 과다로 인해 일어나고 있어 양축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牛越設男부사장(우시고시생리학 연구소)은 뇌하수체기능 향상에 대한 Ru의 효능에서 Ru의 개요, 토끼에 Ru급여시 혈액 및 기타 시험, 토끼의 난소 기타 장기에 미치는 Ru의 효능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통역에는 정길생 박사(건국대 축산대)가 맡았다.



이어 이근상박사(축산시험장)의 번식장애 소에 대한 Ru제제의 효과, 勝見晟 박사(야마가다현 농협가축 연구소)의 우돈의 번식장애 치료효과 및 생산성 향상에 대하여 발표를 했다.

통역에는 정길생박사가 맡았다.

'85사료곡물생산 2억 5,700만톤 예상

지난 8월 USDA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1985년도 미국의 사료곡물생산은 사상최대였던 1982년

보다 약간 많은 2억 5,700만톤에 달해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될 것이라 한다. 이를 곡종별로 보면 옥수수는 지난 1984년도 보다 8%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기록적이었던 1982년보다도 많은 2억 990만톤에 이를 것이며, 수수가 지난해 보다 21%나 증가된 2,660만톤, 귀리 750만톤, 보리 1,3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산증가에 따라 미국의 1985/86년도 말의 옥수수재고는 전년도 보다 약 2배로 늘어난 6,090만톤에 달할 것이다.

낙농산업기술 세미나

-성대 농과대, 300여명참석-

성대 농과대학에서는 낙농산업기술에 대한 세미나를 지난 9월 2일 동교 대강당에서 양축가, 학계, 업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신행태교수(성대 낙농학)의 「젖소 번식효율 향상을 위한 베라-캐로틴의 효과」를 비롯, 총 7명의 연사가 나와 발표했다.

또한 세미나가 열리는 동안 각종 관련업체의 제품전시회도 있어 많은 이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특히 지난 5월 3일 제3차 아세아 태평양 축산학회연합회 대회전 심포지움에서 H. B. Perdox 박사가 발표한 「소에 있어서 암모니아 처리 벗질과 과민 반응」등 발표된 강연에 대한 비디오 상영이 있었다.

제주대에 수의학과 부할 청원

-제주도 수의·축산단체-

제주축협·낙협·양계협회·양돈협회·수의사회 제주지부 등은 제주대학교에 수의학과를 부할시켜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단체에 따르면 제주도의 가축방역과 공중위생을 담당할 수의인력이 크게 부족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7년 제주대의 수의학과를 폐과한 이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형편이란.

특히 제주도는 축산진흥을 3대시책 중의 하나

로 설정, 오는 90년대 후반에는 소 12만두, 닭 91만수, 돼지 9만4천두를 사육할 예정으로 있으나, 이를 담당할 수의인력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어서 가축방역은 물론 식품검사 보건위생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5~6년대에 수의사 배출이 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육가공제품 수요감소

이제 겨우 정착되어가는 육가공업계가 일반경기의 침체와 쇠고기값의 폭락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당초계획보다 20%정도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진다.

육가공업체 대형화

제일제당, 롯데 등 대형 육가공업체에 이어 진주햄을 조양상선그룹에서 인수하여 활성화 계획에 따라 앞으로 육가공품의 시장의 신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항목시뚝제 싸이그로 세미나

-롯데호텔에서 100여명 참석-



(홍병규 사장)



(백인기 교수)



(장두환 교수)

유한양행(대표 홍병규)은 지난 9월 4일 서울 롯데호텔, 6일 부산 크라운호텔에서 양축가, 학계, 업계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목시뚝제 싸이그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홍병규사장은 인사말에서 1956년 싸이그로와 연결되어 국내처음으로 동물약품을 생산했고 의학에서



도 싸이나의 우수의약품을 공급해 국민 보건 위생에 기여했다고 전제하고, 농축약품에도 오데오마이신은 축산방역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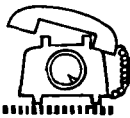
이어서 발표에 나선 백인기교수(중앙대 산업대)는 「싸이그로」는 일정한 크기의 사료입자에 특수한 방법으로 약제를 흡착시켜 만든 제제로 사료와 배합시 분리현상이 없어 균질하게 혼합될 뿐만 아니라, 사료중에서 안정감을 나타내어 23°C에서 최소한 12개월 이상 역가의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또 「싸이그로」는 콕시듐증과 관련된 폐사율, 증체, 사료효율, 장병변도 착색효과 등에 있어 다른 Zonophore 항콕시듐제보다 뛰어난 효과가 각국의 실험결과 입증되었다고 했다.

이어 장두환박사(서울대 수의대)는 「닭콕시듐병과 그 제압」에서 몇마리의 닭을 방사하여 기르고 소규모 양계를 했던 옛날에는 콕시듐병도 다른 병과 같은 방법으로 치료되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 병의 발생으로 경제적 손실이 크고 폐사가 심하여 가금산업은 콕시듐병의 방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이어 축산업발전을 위한 리셉션이 있었다.

업계단신



○ **진흥사료(주)** (대표 배태현) : 경북지역 양축가의 편의 제공과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지난 9월 1일부터 여천출장소(소장 김성표)를 개설하고 일부 출장소 주소가 변경되었다.

- 주소: 경북 영천시 금노동 544-5번지
- 전화: (0563)2-5352

• 불국사출장소

주소-경북 경주시 구정동 434-2

• 경주출장소

주소: 경북 경주시 동부동 98-1

한편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양환, 광영환, 이익재씨를 영업부에 지난 9월 1일부로 특채했다.

또한 품질관리부에서는 사료효율 개선을 위하여 양가축들에게 보다 많은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진흥 특수 육계전기」 사료를 개발 9월부터 시판에 들어갔다.

○ **설원봉씨, 대한제당 사장에** : 대한제당은 지난 9월 9일 이사회를 열고 사장에 설봉원부 사장을 선임하고 민 중기사장을 부회장에 추대했다.

한편 동사는 10월 1일부로 손문익부장을 이사로 승진발령하였다.

손문익 이사는 사대부고, 서울대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석연농장에서 양계에 대한 실무경험을 쌓은 후 한국 카길(주), 한일사료(주)를 거쳐 대한제당에서 사료사업부 창설에 참여하여 왔다. 취미는 승마.

○ **미양계전문가 내한** : 미국 위스컨신 대학교 가금학과장 Sunde 박사를 단장으로 한 미국 양계전문가 38명이 10월 20일(일) 우리나라에 온다. 이들은 한미간에 양계업자들의 민간교류를 통해서 양국간의 친선을 도모하고 기술교류를 통한 양국의 양계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찰단 일행은 22일 오전에는 축산시험장을, 오후에는 한일농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 **<주> 동방(대표 이각모)** : 기획업무와 기술개발을 위해 서울 사무실을 이전하고 업무능률을 제고키 위해 김정환수의사(서울대 수의대졸)와 송병성(전 삼양약화학)씨를 기획부에 보강했다. 기획부 김철중 과장은 미국 아이오와주립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위해 지난 8월 29일 출국했다.

○ **진양사료(대표 강성배)** : 지난 8월 5일 제 24회 사내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은 건국대 김창원박사의 「반추가축의 소화작

● 축산업계소식



용"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한편 8월 15, 16일 1박2일간 영덕군 장사에서 하계 직원 수련회를 갖고 정선교육, 분임토의, 체력단련 등으로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또한 양축가에게 보다 좋은 사료를 공급하기 위해 연구실에 최홍대(경북대 수의과졸) 씨를 특채했다.

○천호인티그레이션<주>(대표 김명근) : 지난 한가위 명절에 닭고기 소비촉진 일환으로 닭고기 선물상자를 마련했는데, 현재도 계속 판매중이다.

이번 판매 선물세트에는 날개, 가슴살정육, 통다리 등 신선한 부분육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하여 절찬리에 판매중이며 가격은 1만원이다.

○현대약품(대표 진수창) : 지난 9월부터 행정구역 정리 변동으로 주소가 하곡동 1110-2로 변경되었다.

○경기사료(대표 이철용) : 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9월 1일부로 업무부에 원국회씨(전대 축산대졸)를 특채하고 이 승일차장(전 업무부 과장), 이일원 차장(전 영업부 과장), 문춘환 과장(전 영업부 대리)을 승진 발령했다.

○영남제분<주> 양산사료공장(대표 유송술) : 지난 9월29일 0시부터 전화번호가 양산(0523) 4-8229, 8230, 부산(051) 463-1883~5으로 변경되었다.

○다나화학(대표 임정수) : 사세확장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에 따라 지난 10월 2일 서울사무소를 이전했다.

• 주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35-6 (종원빌딩 301호)

• 전화: 546-7881~3

○한국사료향미양행(대표 류창열) : 10월 15일 0시로 전화번호가 변경된다.

• 전화: 466-9227(대표)

466-8364, 467-8984~5

○선진축산<주>(대표 이원복) : 선진가족 전체를 표상하는 심볼마크를 제정하여 지난 9월5일부로 상호를 선진사료<주>에서 선진축산<주>로 개정하였다



선진축산주식회사

172 - 111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사동리 114-1
전화 : (0336) 2-4191~2, 4785~6

○화성사료(대표 김동수) : 사세확장과 영업활동의 강화를 위하여 지난 9월 1일부로 영업부에 채규웅(전 부국사료) 씨를 특채했다.



(채규웅씨)

○중앙케미칼(대표 김무진) : 새로운 항록 시뮬제 아포콕스 및 유량, 유지율 증진제인 다이아몬드 이스트킬취로 사용 공장과 양축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동사는 업무의 활성화와 영업의 쇄신을 위하여 영업부차장에 전용희씨를 지난 9월 2일부로 특채했다.

○동방유량<주>해표사료(대표 신명수) : 지난 9월 7, 8일 양일간 천마산 연수장에서 영업

회의 및 극기훈련을 실시했다.

새벽안개를 헤치며 천마산 정상까지의 극기행렬은 해표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동력을 발휘, 전원참석하여 뜻깊은 행사였다.

한편 실질적인 고객 서비스 향상과 효과적인 시장개척을 위하여 서울지구장에 심남섭차장(전 신촌사료) 제3 지역에 원병희 과장(전 미원사료)을 보강하여 새로운 영업업무에 들어갔다.

○파주가축약품(대표 조성덕) : 지난 9월 21일부로 창립 2 주년을 맞이했다.

지역 양축가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동사는 앞으로 보다 철저한 처방과 신속한 정보를 양축가에게 전달하고 좋은 약품만을 공급하리라고 한다.



○덕수가축(대표 박길수) 중소, 대가축의 번식관리와 홀몬제의 역할에 대한 세미나를 지난 9월 6일 사료회관에서 양축가, 업계, 학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동사와 기술 제휴하고 있는 화란인 터베트사의 해외 판매부문 기술지원업무담당 잔·썸·바스(Dr. Jan C. Baars) 박사를 초청하여 중·대동물의 번식관리에서 대하여 강의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통역에는 국내 전문가인 이병성 씨와 서울대 임경순박사가 맡았다.

○국보통상(대표 강의호) :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하여 지난 8월 1일부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 주소 :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501호

• 전화 : 734-3384, 5917

○삼양유지사료(대표 이병욱) : 전화번호가 8월 15일자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733-0164~8

733-0157(사장실)

○축산時報 창간(대표 전동용) : 문공부의 승인을 받아 주 2회 타브로이드판 1차산업 전문지를 발간한다. 축산업선진화의 과도기에서 축산 정보, 유통, 가공 등 새로운 정보전달을 위해 곧 창간할 예정이다.

• 회 장 : 전동용

• 전 무 : 윤봉중

• 주 소 : 강남구 서초동 1137-2

• 전 화 : (585) 1641~6

◆ 신제품 ◆

암피콜리, 에리셀파 신발매

중양케미칼(대표 김무진)은 보다 좋은 약품을 양축가에게 공급하기 위해 연구 노력하고 있는 동사는 암피콜리와 에리셀파를 개발 시판중이다.

암피콜리는 그람음성균에 살균적으로 작용하는 싸이클릭 폴리펩타이드계 항생물질인 콜리스틴과 그람음성균에 광범위하게 작용하는 반합성 페니실린계 항생제인 암피실린이 효율적으로 배합된 복합항생제로 CRD, 전염성코라이자 빠다리병, 자궁내막염, 유방염, 각종장염, 파스투렐라성폐염, 포도상구균성폐염, 대장균 설사, 살모넬라성설사 등에 내성없이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에리셀파는 복합항생제로 동남아에 수출하여 그곳 양축가에게 좋은 호평을 받았던 에리셀파는 마이코플라즈마 및 그람양성균에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며 만성호흡기 질병인 CRD, CCRD, 장염, 살모넬라증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를 발휘한다.

**타이로트림 주사 겐타-F 주사
국내최초로 개발**

삼양약화학(대표 민경우)은 최근 각종 세균에 대한 내성증가로 난치성, 복합감염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그람양성균 및 마이코플라즈마균에 특효약인 타이로신과 설파메톡사졸 트리메토프림이 이상적인 비율로 혼합처방된 광범위 살균성 혼합항생제 타이로트림-주사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 시판하게 되었다.

또한 네덜란드의 유명한 동물약품 제조원인 Dopharma 사로부터 수입하여 절찬리에 판매중인 겐타-F 주사는 그람음성균 및 포도상구균 감염증에 특히 유효하며 장내세균 감염서 2 차적으로 발병되는 호흡기 질병에 탁월한 치료효과가 있다는 양축가로부터의 좋은 반응을 얻어 동사에서는 본격적인 국내생산 제품으로 양축가에 공급할 예정이다.

**코미락크리스, 타이로-
씨엠주사제 개발**

(주)한국미생물연구소(대표 한화섭)는 코미락크리스와 타이로씨엠주사를 절찬리에 시판중이다.

「코미락 크리스」는 포자를 형성하고 있어 장기간 보관이나 사료에 혼합하여도 그 활력에는 변함이 없으며 인공유에도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포장단위 : 500g, 1kg, 10kg

「타이로-씨엠주사」는 두가지의 항생물질이 상승작용을 하며, 소염제가 처방되어 염증반발을 방지시켜 질병으로부터 신속한 효과를 나타내게 한다.

폐염, 유행성폐염, 기관지폐염, 위축성비염, 관절염, 신경증상, 돼지의 하리, 폐혈증, MMA 증후군에 치료효과가 있다.

* 포장단위 : 20ml, 50ml 바이알

시세속보 · 사료관측엽서 노계 및 병아리시세엽서

- 구독문의 : ☎ (752) 3571~2
- 구독방법 : 우편환 또는 온라인으로 송금

농 협 : 097-01-000953 (대한양계협회)

제일은행 : 105-10-041317 (대한양계협회)